춘천시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혁신 방안

김정임(우리누리)·강종윤(강원대학교)·박제완(강원대학교)·권소담(강원대학교)

춘천시는 인구 약 28만 명의 중소도시로 타 지역 도시들이 겪고 있는 청년층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춘천시는 2개 대학, 1개 특수목적대학, 2개의 전문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로 청년층이 많이 정주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이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다뤄져 왔던 고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층은 경제활동인구의 핵심층으로 지역에서 이들의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와 상호 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의 중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중소도시인 춘천시를 대상으로 청년층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혁신방안을 스마트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 단위에서 혁신 주체들의 공동학습과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술, 즉 혁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체제이다. 스마트지역혁신체제는 스마트 기술기반의 융복합 기술혁신 체제로 교육, 사회, 사람의 협력적 사회자본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습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 분석을 위해 춘천시 인구, 교육, 산업, 기술창업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춘천시 청년층 인구 구조를 살펴보았다. 춘천시 19세~35세 인구는 매년 115명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대 별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19~25세까지는 인구가 소폭 증가하지만 졸업 이후 26~30세 인구는 '탈 춘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 출산 등 인구 재생산이 이뤄지는 31~34세 구간도 연평균 1.3%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년 정책도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교육 부문으로 19~25세 인구가 증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춘천 지역 전문계 및 일반계고교 졸업생 중 진학, 입대, 취업 인구를 제외하고 진학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층이 매년 5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청년층은 어느 곳에서도 관리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층으로 대부분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교 졸업 청년층까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교까지 아우르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춘천시 전 산업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 종사자수 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 제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이외 ICT 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농업 분야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가 및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가구당경지면적은 2.75%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노동력 부족의 문제도 겪고 있다. 이에 첨단기술의 도입과 투입 대비 효율(수익)이 좋은 농업의 도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창업에 있어서는 춘천 학생 창업 기업수는 강원도 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대비해서는 미흡하다. 창업 교육과 창업 자금은 대학생의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춘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춘천형 지역혁신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기존 자원 및 비교 우위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전 산업을 아우르는 경제 생태계를 갖춘 도시, 생산 도시, 협업 도시로서의 춘천으로 만들기 위해 융복합 산업인 스마트팜을 아이템으로 지역혁신을 통한 청년인구 지역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